

'네트의 스타' 안세영·신유빈, '금빛 시동'

안세영, 조별 리그 순항 예고 신유빈, 임종훈과 혼복 출격



항저우를 금빛으로 수놓았던 안세영(22·삼성생명)과 신유빈(20·대한항공), 두 네트 스포츠 스타가 파리에 서로 '금빛 스매시'를 날린다.

안세영은 명실상부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이다. 현재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단식, 여자 단체전 2관왕에 올랐다. 앞서 열린 세계개인선수권대회에서는 한국 단식 선수로서 처음 우승하는 역사도 썼다.

항저우에서 다친 무릎 때문에 올해 경기력이 다소 하락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안세영은 파리에서도 여전히 '금메달 후보'다.

신유빈은 한국 탁구 최고스타다. 침체하던 한국 여자 탁구는 신유빈이 등장하면서 반등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5일 5년 만에 세계선수권에서 전지희(미래에셋증권)와 함께 한국 선수로는 36년 만에 여자 복식 결승에 오르더니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이어 항저우에서 전지희와 여자 복식 우승을 합작하며 한국 탁구에 21년만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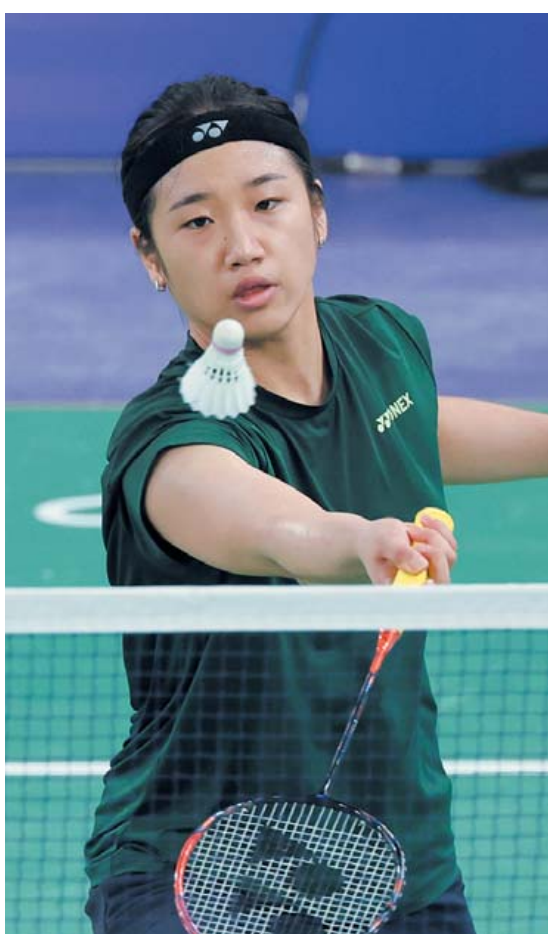
탁구와 배드민턴 모두 현지 시간으로 개회식 다음 날인 27일부터 파리 올림픽 경기 일정을 시작한다.

탁구는 한국 선수 첫 경기 일정이 신유빈은 임종훈(한국거래소)의 혼복복식 1차전(16강)이다.

상대는 독일의 치우 당-나니 미탈할 조다. 이번 올림픽 10년 시드이지만, 2023 유러피안게임에서 우승한 유럽 최강 조다.

첫 경기를 넘으면 루마니아의 오비디우 이오네스쿠-베르나데트 최츠 조를 상대한다.

신유빈은 여자 단식과 단체전에서도 메달 도전에



안세영이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포르트 드 라 샤펬에 마련된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선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만 출전하는 안세영은 28일 금빛 도전을 시작한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10시40분 칼로야나 날반토바(불가리아)를 상대로 여자 단식 조별리그 A조 첫 경기를 치른다. 이어 53위 치체페이(프랑스)와 대결한다.

안세영의 8강 상대는 C조에 속한 세계 6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일 가능성이 크다.

야마구치는 안세영에 앞서 세계랭킹 1위를 지켰던 선수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안세영이 상대 전적에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우스 파리 아레나4에 마련된 탁구 경기장에서 신유빈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5승 11패로 밀렸다. 이후 안세영이 기량을 완전히 꽃피우면서 세계 랭킹은 역전됐고, 통산 전적도 10승 13패로 맞춰졌다.

다만 올해 두 차례 맞대결에서 1승 1패를 주고받은 만큼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신유빈처럼 안세영 앞에도 '꽃길'은 없다. 결승에 오르면 세계 2위 천위페이(중국)와의 숙명적인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통산 전적에선 안세영이 8승 12패로 밀리지만, 초반 7연패를 제외하면 안세영이 우위를 점한다.

/연합뉴스



제17회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에 참가하는 중국 선수단이 25일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충청시 청소년 160명 빛고을서 스포츠로 하나되다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31일까지 3개 종목 열전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이 빛고을에서 스포츠로 하나가 된다.

광주시체육회는 25일 "한국과 중국 광주시체육회는 25일 "한국과 중국

의 초·중학생 160명이 참가하는 제17회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가 오는 31일까지 광주시체육회관 등 3곳의 경기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 선수단은 경신중, 문화중, 광주체육중 등 광주지역 13개 초·중학교의 80명으로 구성됐다. 중국은 충청시의 초·중학교에서 80명의 선수단을 꾸렸다.

교류대회는 탁구·농구·배드민턴 등 3개 종목으로 펼쳐진다.

중국선수단이 입국한 25일 다음날인 26일과 27일 합동훈련, 28일 연습경

기, 29일 공식경기 등으로 진행된다. 경기 장소는 광주시체육회관(배드민턴), 상무국민체육센터(농구), 동림다목적체육관(탁구) 등이다.

교류전 참가 선수단은 공식경기 후 빛고을체육관에서 친교의 시간을 보내고 ACC를 방문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미래의 주역들이 양국의 청소년들이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스포츠를 통해 꿈과 우정을 키우길 바란다"며 "충청에서 온 선수단이 광주의 매력을 느끼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광주FC 베카가 지난 21일 열린 대구FC와의 원정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후 팬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아사니·가브리엘·베카 '삼각편대' 뜬다

안방 수원FC戰 승리 예약

휴식기 앞두고 27일 맞대결

프로축구 광주FC가 27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수원FC와 K리그1 2R 홈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외국인 공격 삼각 편대, 아사니·가브리엘·베카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아사니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후반기 광주의 키펀더로 지목받은 아사니는 코리아컵 8강과 대구 원정에서 교체로 출전해 정교한 왼발 패스와 슈팅으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 기회를 창출했다. 위협적인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의 퇴장을 유도하면서 엄지섬이 빠진 측면 공격에 무게감을 더했다.

이번 수원원정에서는 올 시즌 첫 공격 포인트에 도전한다.

가브리엘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지난 대구 원정에서 수비 시 5백처럼 내려앉아 상대 공격의 핵심 세iza를 공

공 뒤흔다. 공격 시에는 저돌적인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 진영을 허물었다. 수원과의 대결에서도 상대 공격의 핵심인 안데르손과의 1대1 매칭을 준비한다.

한편, 대구 원정에서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기록한 베카는 수원전에서 연속 경기 득점에 도전한다.

울산과 대구를 상대로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수비가 안정화되고, 아사니의 복귀로 공격 옵션이 다양해지면서 지난 시즌 경기력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는 광주는 이 기세를 몰아 수원을 반드시 꺾고 상위권 도약을 이뤄내겠다

는 각오다. /박희중기자

순천제일고, 대통령배 중고배구 우승

순천제일고 배구부가 제57회 대통령배 전국중·고배구대회 결승에서 현 일고를 3-0으로 제압하며 정상에 올랐다.

순천제일고는 지난 17-21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진주 동명고를 3-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예선에서 패배를 안졌던 '강직' 현일고를 다시 만나 세트 스코어 3-0으로 승리했다.

순천제일고는 2012년 우승 이후 12년 만에 정상을 탈환하며, 올 시즌 2차례 3위와 지난 대회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어냈다. 중등부에서는 순천팔마중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순천팔마중은 결승에서 남성중을 만나 3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1-2로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다. /박희중기자

수영 김우민 "첫 메달은 내가 쓴다"

자유형 400m 금메달 도전

2024 파리 올림픽 수영 종목에 걸린 49개의 금메달 중 첫 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은 경쟁 남자 자유형 400m에서 나온다.

파리 라테팡스 수영장에서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수영 첫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을까.

한국 수영은 김우민(22·강원도청)의 역을 기대한다.

김우민은 한국시간으로 27일 오후 5시에 남자 자유형 400m 예선을 치른다.

이 종목 결승은 28일 오전 3시42분에 시작한다.

많은 전문가가 남자 자유형 400m 경쟁 구도를 김우민, 루카스 마르텐스(독일), 새뮤얼 쇼트, 일라이자 워닝턴(이상 호주)의 4파전이라고 분석한다.

수영 전문매체 스웬스웬은 파리 올림픽 결과를 '1위 쇼트, 2위 마르텐스, 3위 김우민'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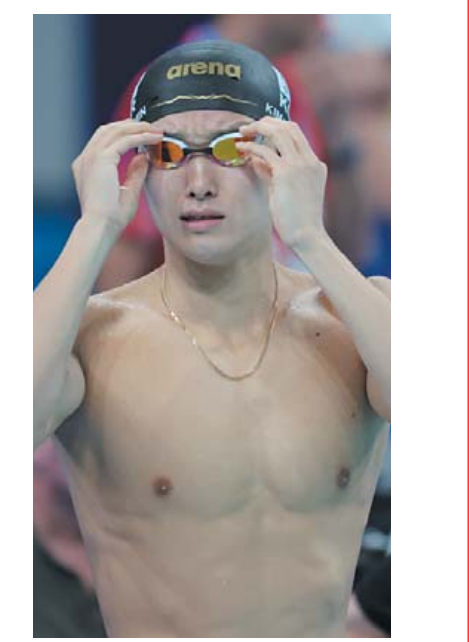
김우민은 자신감이 넘친다.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거의 완벽하게 소화한 '강훈련'이 자신감의 근거다.

올해 2월 열린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김우민은 경쟁 종목 대회 첫 금메달리스트로 우뚝 섰고 2011년 상하이 대회 박태환 이후 13년 만에 탄생한 세계수영선수권 한국인 챔피언으로 기록됐다.

김우민이 파리에서 시상대에 오르면, 2012년 런던 대회 박태환 이후 12년 만에 등장한 올림픽 수영 한국인 메달리스트가 된다.

그 메달이 금빛이면, 2008년 남자 자유형 400m 챔피언 박태환의 맥을 이어 16년 만에 올림픽을 정복한 한국인 수영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한다. /연합뉴스



수영 국가대표 김우민이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라테팡스 아레나에서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흥군청 태권도팀, 창단 3개월만에 전국 제패

한국실업최강전 전국태권도 대회, 금2·동2...개인전 종합우승 쾌거

전남 최초 태권도 실업팀인 고흥군청 태권도팀이 창단 3개월만에 전국을 제패했다.

고흥군청 태권도팀은 지난 21-23일 제주 공천포전지훈련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4 한국실업최강전 전국태권도대회에서 남자 개인전 8체급 중 6체급에 출전, 4체급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개인전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고흥군청 태권도팀은 -87kg급 이경학과 -58kg급 하선우가 결승에서 각각 강민우(수원시청)와 김세운(국군체육부대)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63kg급 이의현과 -80kg급 김근형은 강호들을 연파하며 준결승에 올랐으나 아쉽게 패하며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지난 4월 전남 최초로 창단한 태권도 실업팀인 고흥군청 태권도팀은 이번



2024 한국실업최강전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개인전 종합우승을 차지한 고흥군청 태권도팀. 뒷줄 왼쪽부터 김다혁, 이우빈, 오인성, 김근형, 이경학, 하선우, 이의현. <전남도체육회 제공>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신생팀 돌풍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개월된 신생팀인 고흥군청 태권도팀이 경쟁팀들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성적을 거두 매우 기쁘다"며 "이 기세

를 이어 전국 최고의 실업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